
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2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3>		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		
책 임 자	[금융위원회] 이동훈 과장(02-2156-9830) [금융감독원] 조운근 국장(02-3145-8220)	담 당 자	[금융위원회] 권기순 사무관 (02-2156-9835) [금융감독원] 김상기 팀장 (02-3145-8240)
배 포 일	2016.1.7.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4매

## 제목 : 공장,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.

- ▶ 기업성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 가능
- ▶ 보험소비자 편익을 위해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대폭 전환
- ▶ 보험요율 산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'참조요율'의 단계적 확대

### I. 추진 배경

- '15.10.19. 발표한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의 일환으로,
  -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(가격)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

#### ※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

- ① (참조요율)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
- ② (경험요율) 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·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
- ③ (협의요율)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제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

-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

## II. 개선 방안

### 1 기업성 보험은 '협의요율' 또는 '판단요율' 자율적 선택 허용

- (현행)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율('협의요율')만 사실상 활용

※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기업성보험에 대하여 스스로 보험요율을 판단·결정

- (개선)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'협의요율'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\* 산출도 가능

\* 판단요율(judgement rate) :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·결정하는 요율로서 해외에서 이미 활성화

-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,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

※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규정

- 소비자 보호 방안\*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유도

\*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

### 2 영문약관의 국문약관 전환

- (현행)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

- (개선) 현행 영문약관 중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국문약관\*으로 전환

\* (현행) 일반손해보험 상품 3,314종 중 48.1%(1,594종) → (개선후) 82.1%(2,721종)

### 3 기업성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 '참조요율' 단계적 확대

☐ (현행)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\*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

\* 협의요율은 참조·경험요율과 달리 외부기관의 요율 적정성 검증절차 등 생략 가능

☐ (개선)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\*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\*\*으로 확대

\* 체계적인 통계 집적 → 참조요율 산출 → 각 보험회사 실정에 맞는 보험료 산출에 활용

\*\* (1단계) 재산종합보험 → (2단계) 전문인배상책임 → (3단계) 기술, 조립, 배상 등

## III. 기대 효과

### ①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

- 기업성 보험에 대하여 '판단요율'이 허용되는 만큼,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·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# ②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

-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되어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되고,
-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되어 재보험 수지차도 개선되고 해외 진출시 보험료 경쟁력 확보

### ③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보호

- 소상공인 등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, 보험금 지급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

## IV. 향후계획

☐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(안) 입법예고('15.12월)를 거쳐, '16.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

## 붙임

##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

구 분	내 용	산 출 방 법
경험요율	보험회사의 자체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요율	(통계요율) 과거 경험통계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요율  * 대상 : 대수의 법칙 등이 적용가능한 통계량이 충분한 위험
참조요율	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·제시한 보험산업 전체의 평균 요율이며,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시 개별위험평가* 등을 반영하여 동 요율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* 동일 업종이라도 개별기업별 상이한 위험 특성이 있어 동 특성을 평가하여 보험요율에 반영	
판단요율 (도입예정)	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판단한 보험요율	(자율요율) 기존 요율, 기타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·결정하는 보험요율
협의요율	재보험자로부터 제공받은 요율	* 대상 : 위험이 크고 계약조건이 다양하여 통계적으로 요율산출이 곤란한 위험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듣겠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